

나주시 중소기업 육성 탄력 받는다

나주일반산단·혁신산단 2곳 특별지원 지역 지정 2년 연장 수의계약·법인세 감면 등 혜택



나주 에너지밸리 혁신산단.

나주시가 중소기업 육성에 탄력을 받게 됐다. 나주시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나주일반산업단지와 혁신산업단지가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으로 2년 연장 지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은 경영 위기에 처한 산업단지와 중소기업 밀집 지역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지원하는 제도다.

나주일반산단은 분양률 100%로 현재 51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지난 2010년, 2015년, 2020년 3차례 특별지원 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오는 26일 지정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혁신산단은 분양률 97%에 185개 기업이 생산 활동을 하고 있다. 2015년, 2020년 2차례 특별지원 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일반산단처럼 오는 26일 지정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2년 연장 지정에 따라 오는 2027년 2월까지 자격을 유지함으로써 입주기업 경영에 활력을 더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혜택을 살펴보면 기존 입주기업과 신규

입주 예정 기업에서 직접 생산한 물품의 경우 제한경쟁입찰과 수의계약 등 우대 혜택을 2년간 받게 된다.

또 법인세 50% 감면, 중기부 긴급 경영 안정 자금, 연구개발·건설 등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나주시는 지역 중소기업이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 수 있도록 제품개발, 수의계약 의존

도 개선, 전국 입찰 계약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투자하기 좋은 기업 친화 도시 조성에 온 힘을 쏟을 예정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 연장에 따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입주기업 경영 안정과 산단 투자유치 활성화는 물론 침체한 민생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귀농귀촌인 곡성 정착 주택·영농자금·집들이 지원

곡성군이 귀농귀촌인과 전입 예정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곡성군은 지역 활성화와 인구유입을 위해 귀농귀촌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펼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예비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6개월 단위 거주시설을 지원한다. 곡성, 석곡, 옥곡권 권역별로 운영하고 있는 귀농인의 집(3개소 6실)을 활용해 지역 체험과 주민교류 활동, 영농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5월부터는 도시민들이 시골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전남에서 3개월 살아보기 사업' 연 2회 추진한다. 3개월 살기는 지역탐방, 영농체험, 농촌체험 등으로 구성됐으며 22가구를 대상으로 운영한다.

지난해 귀농인의 집과 전남에서 살아보기에 35명이 참여했으며 이중 8명이 곡성에 정착했다.

또 올해부터는 빈집을 리모델링해 귀농귀촌인에게 제공하는 '전남형 만원 세컨하우스(올만한家)' 사업도 추진한다.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과 창업을 위해 5년 이내 신규농업인에게 영농기반시설 자금 1200만원을 지원하고 노후주택 수리사업, 우수창업 활성화 사업 등도 운영한다.

이 밖에도 원주민과 귀농귀촌인의 화합을 위한 집들이 비용 등을 지원하고 귀농귀촌센터를 운영해 다양한 정책을 홍보하고 상담도 제공한다.

/곡성=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이상익(왼쪽 네번째) 함평군수가 지난 20일 군청에서 함평지역 건축사들과 건축물 해체계획서 비용 감면 협약을 맺고 있다. <함평군 제공>

함평군 모든 건축물 해체 수수료 20% 감면

함평지역 건축사들 업무협약

함평지역 건축사들이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축물 해체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함평군은 함평군에 등록된 건축사들이 지난 20일 건축물 해체 수수료 감면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2022년 8월부터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건축물 철거 전 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검토·날인한 해체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비용이 최소 100만~250만원까지 소요됐다.

협약에 따라 감면 대상은 함평의 모든 건축물

(허가 대상 및 신고대상, 기타 시설물)로 지정했으며 감면 비율은 기존 해체계획서 수수료의 20%다.

건축물관리법이 규정한 모든 건축물에 대한 수수료 감면 혜택은 전국에서 함평이 처음이다.

건축물 해체 수수료 감면에 따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농어촌의 흉물 건축물과 빈집 정비사업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인 건축 분야에서 수수료 감면 혜택은 군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선뜻 지역사회 공헌에 참여한 건축사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신안군 청년도전지원사업 공모 선정

18~34세 100명 일자리 알선

신안군이 청년도전지원사업 선정으로 일자리 확보에 나선다.

신안군은 지난 19일 '2025년 청년도전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지역 기업과 연계해 취업을 알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 선정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의 참여 이력이 없거나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는 퇴소 5년 이내 퇴소 대상자로 한다. 퇴소 일을 연장한 청년 등 구직 의지를 잃어가는 은둔형 청년들을 양지로 이끌어 사회의 일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만 18~34세 지역 청소년 100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프로그램 진행은 ▲단기(5주, 25명) ▲중기(15주, 50명) ▲장기(25주, 25명) 과정으로 1:1 밀착 상담을 통해 자신감 회복, 진로 탐색을 같이 고민하며,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

역기업과 연계해 취업을 알선할 계획이다.

프로그램 이수자는 참여 정도에 따라 단기 50만원, 중기 150만원, 장기 250만원의 참여 수당을 지급하고, 중기 프로그램 이수 때 20만 원의 인센티브, 장기 프로그램 이수 때는 인센티브 20만 원과 사업 종료 후 취·창업 구직 활동 인센티브 3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중·장기 프로그램 참여자 중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창업하고 3개월 근무 때는 5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프로그램 운영은 군 출연 기관인 (재)신안신재생에너지재단이 청년도전사업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안군과 신재생에너지재단이 협업해 청년도전지원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고, 또한 교육을 이수한 청년들이 신안군에서 역점을 두어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분야(햇빛, 바람, 조류)와 연계된 취·창업으로 이어져 지역의 미래를 함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완도군 해조류 활성소재 인증·생산 시설 조감도.

완도군 해조류 활성소재 인증·생산시설 착공

250억 들여 완도읍 농공단지엔 건립

완도군은 해조류 특화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250억원 규모의 해조류 활성 소재 인증·생산 시설 건립공사를 착공했다고 23일 밝혔다.

완도읍 농공단지엔 건립될 이 시설은 연면적 3868㎡ 규모로, 해조류에서 기능성 물질을 추출해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의 원료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전처리와 품질관리 등을 진행한다.

시설에는 해조류 탈염과 증류수 제거 등 전처리

시설인 HACCP동, GMP(해조류 기능성 원료 소재 생산)동, QC 분석실 등이 들어선다.

2026년 말 시설이 준공되면 단순 해조류 가공뿐만 아니라 고차 가공까지 다방면으로 활용이 가능해져 고부가 해양바이오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식품 안전관리 인증과 의약품 제조, 품질 관리 기준을 거쳐 고부가가치 바이오 원료를 생산하고 이를 전국 단위에 공급하는 핵심시설로 자리잡게 된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영암군 '현충공원'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

영암군이 영암읍 교동지구엔 들어설 현충공원을 과거와 현재 역사를 미래까지 이어가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

영암군은 지난 19일 상이군경회장 등 6개 보훈단체회장, 마을 주민 등이 참석해 '현충공원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현충공원은 국가와 지역을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공간이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현충탑 상징물과 추모 시설 조성 ▲평화 상징 조형물 배치 ▲추모행사 수용 공간 확보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 현충공원 최종 디자인이 확정됐다. 현충공원은 군민이 보훈을 일상에서 보고 느낄 수 있고 주민 접근성,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된다.

현충공원은 교동지구 4869㎡부지에 17억원 사업비로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4월 착공 예정이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www.e-dk.co.kr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룩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룩탑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